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천만송이 국화축제 준비 '레디'

골든코리아·나노플렉스·대리유통, 익산 제3·4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농·축산 관련 기업인 (주)골든코리아, 나노플렉스, (유)대리유통과 제3·4일반산업단지 입주자를 위한 분양계약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오후 시청 홍보관에서는 정현율 시장, 소병홍 시의회 의장, (주)골든코리아 김미정 대표, 나노플렉스 박재홍 부장, (유)대리유통 안명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분양계약 및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골든코리아는 닭고기 육가공 전문업체다. 물량 증대에 따라 익산 제4단지 11,570㎡ 부지에 80여억원을 투자해 허큘리, 마니키, 사조 등 육계업체를 주요 거

래처로 삼고, 원료육을 절단·발골·성형하여 통닭, 절단육, 특수부위(가슴살, 닭다리 등)를 가공하고 있다. 기존 삼계, 훈제는 물론 통조림, 소세지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나노플렉스는 제3단지 3,300㎡ 부지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독자기술로 개발된 첨단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은(Ag)나노 친환경 작물보호제를 생산한다.

전문 기술제 및 규산제, 생육촉진제, 관수용 전문제제, 생육강화제 등 제품구성이 다양하며, 농업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제3·4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관

계지는 전했다.

(유)대리유통은 제4단지 9,917㎡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자체 협력 농장에서 생산한 원란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폴드체인 유통망을 통해 학교급식, 가공공장까지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권 유일의 액란 제조업체로서 계란산업의 발전은 물론 특화된 아이템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제4단지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들 3개 기업은 총 12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3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는 이들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반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산업 분야에 완료될 때까지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현율 시장은 "농·축산 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이 익산시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단지 투자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내년 축제 발전방안 의견수렴 시간 가져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올해 국화축제 결과를 평가하고 2018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학계, 문화예술계, 화훼농업인, 교통, 먹거리 등 국화축제 추진위원, 관련부서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국화축제 결과평가 및 2018년 축제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국화축제는 소독차출형 축제로 특별전시장 유료화, 농특산물 판매부스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원광대학교 박운점 교수, 전북대학교 명현 교수 등 전문가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축제 유료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축제 유료입장객 확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축제 장소문제, 문화예술 공연, 교통, 먹거리장터 운영, 야간조명, 축제캐릭터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축제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모 부시장은 "올해 국화축제는 전문가, 봉사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결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2018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국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치과대학 이병도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과 이병도(사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됐다.

영상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병도 교수는 '턱뼈 질환의 방사선학 소견'에 관한 논문들을 국제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영상치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치과방사선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제영상치의학회 및 미국영상치의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장에너지, 인재양성 장학금 5천만원 기탁

군산산업단지에 소재한 군장에너지(대표 박준영)가 12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군산교육발전추진재단에 5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주)군장에너지의 장학금 기탁은 누적액만도 총 4억2천만원에 달하며,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소통동, 미성동)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지난 5년간 총 3억 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임직원의 자발적 봉사활동인 1004운동으로 찾아오는 에너지학교, 무료급식봉사, 김장나눔봉사, 난방지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준영 대표는 "장학금이 지역학생들



/군산=김관곤기자

군산시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환자가 최근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SV는 2세 미만의 소아에서 감기처럼 시작하여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유행시기마다 재감염될 수 있으며, 천식을 하거나 폐와 심장 문제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보건소는 RSV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지침을 관내 산후조리원에 배포했으며, 관내에서 RSV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치료를 실시하는 등 RSV 예방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감염이 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고 장난감 등 개인물품을 청결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곤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제2기 전북금연지원센터로 재선정

금연정책 사각지대 취약계층 흡연을 감소·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앞장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무영)에서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보건복지부 민간보조사업 사업평가 선정결과 제1기(2015년~2017년)에 이어 제2기(2018년~2020년)에도 전북금연지원센터로 재선정됐다.

전북금연지원센터는 2015년과 2016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대상의 날 개인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개소 이후 뛰어난 활약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시도별 지역금연지원센터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4박 5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와 1박 2일 일반치료형 금연캠프, 임원환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가 추가되어 금연정책의 사각지대

에 있었던 취약계층의 흡연을 감소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가 예상된다.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은 "제1기 이어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에 재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며 담배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 전북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경찰서, 폭설 대비 교통비상근무 체계 돌입

익산경찰서는 최근 서해안 지역 폭설 대비 교통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시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협조 24시간 폭설대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도로에 설치된 제설차 등 점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관리계 및 지역경찰 협업으로 주요 결빙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제설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